

#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 구현 '앞장'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지난해 12월 17일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지난 한 해 회기운영 및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2018년 7월 제8대 진안군의회가 출범하며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바른의회 구현'을 목표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연구하고 고민하는 의회구현 그리고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중재자 역할에 충실했다.

지난 한 해 군민을 위해 숨겨진 게 달려온 진안군의회 의정활동을 되짚어 본다.



의회 본회의장



신림문화벨트 추진 운영보고회



현장의정활동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바른 의회 구현 김광수 의장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 현장을 방문하며 소통을 최우선으로 군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다.

김 의장은 '임인년에도 군민의 뜻이 집행부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올바른 대안 제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군의회 실현

지난 한 해 진안군의회는 두 차례의 정례회와 여섯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총 100일 간의 회기 일정을 소화하며 조례·규칙 80건, 예산 및 결산 5건, 기타 안건 14건 등 140여 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했다.

특히 전 주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제3차 재난기본소득지급금(2020년 제1차·제2차 기본소득지급금 각각 10만원, 20만원 지급)은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상실감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다.

또한 제288회 임시회와 제272회 임시회 기간에는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부귀 편백숲 산림욕장,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국립지리권 산림치유원, 마이산 신비자연학습장, 진안읍 체리 시범재배 농가, 마령면 무진장축협 축사,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등 진안군 주요 사업현장 20여개소를 방문해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했다.



국도 26호선 보통재 터널화 정부 계획 반영 촉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한 균형있는 의정활동

지난 한 해 진안군의회는 집행부와 의회 간 상생과 발전의 협치는 유지하며,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견제와 감시로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중재자의 역할로 군민이 원하는 소통의 정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 적절한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 철저 등 총 144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군정에 대한 건설적인 방향과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군정질문 12건, 5분 자유발언 10건 등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행정수요가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뿐만 아니라 4,855억여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 심의에서도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현세가 허부루 편성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코로나 19 극복 주민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소득 증대와 같은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심사한 결과 효과성이 낮거나 사업비가 과다 편성된 6건 30억여원을 삭감했다.

한편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현안논의를 통해 원만한 업무추진을 도모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해 표창장을 수여함으로써 군민을 위해 적극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인정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연구하고, 고민하는 진안군의회

진안군의회는 '진안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와 '진안군 산림자원 이용 활성화 연구회' 구성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이 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다

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해왔다.

(재)전북연구원과 진안협동조합연구소와 함께한 연구를 통해 우리지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제시 할 수 있는 의회상을 정립 할 수 있었다.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의정 역량강화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조례입법,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심사방법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입법 법률고문을 통한 자문을 활용해 의정 수행능력을 배양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석)전문위원 제도를 활용 정책을 연구하며 의정활동을 돕고 의정역량 강화에 힘썼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통해 군정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의회상 정립

진안군의회는 군민과 소통·공감하며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는데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각종 지역행사과 축제를 찾아 함께 하며 군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민원·애로사항 등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군민과 집행부를 잇는 가교역할에 충실했다.

특히 '열린민원실(이하 민원실)' 제도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 왔다. 민원실은 2018년 제8대 진안군의회 출범 이후 40여건 이상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제8대 의회 출범 시 표명했던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바른 의회 구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100일간 회기 중 140여건 안건 처리  
군민 삶의 질 향상·복리증진 기여  
의원 연구모임 통해 지역 현안 해결  
전북연구원 등과 함께 한 연구 통해  
지역발전 새 방향·목표 제시

## 의회의 다짐

“**군민의 대변인으로  
권한·책무 다 할 것**”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진안군의회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고 소통하면서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0여 년 만에 전면개정되며 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한단계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걸맞게 진안군의회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진안군민의 대변인으로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council.jinan.go.kr

## 더 큰 열정으로 진안군민의 뜻을 모아

# 군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이 되는 진안군의회가 되겠습니다.

항상 열린 의정으로 군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군민이 원하는 올바른 의회로  
진안군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

제8대 진안군의회 |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바른의회!